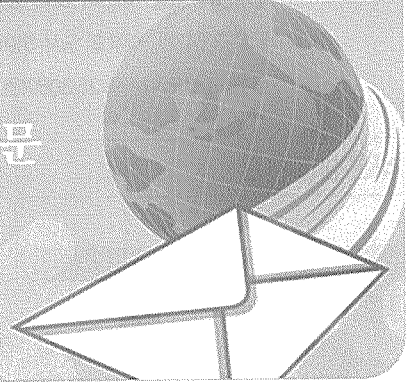


출장보고 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북측(평양) 방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이현주 재정분과위원장

□ 평양,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멀리 돌아서 도착한 곳.



〈2000년 남북 도서관계 대표의 만남〉

2000년 10월 25일 일본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일본전국도서관대회, 오키나와현(沖繩縣) 나하시(那覇市) 개회식장 단상에서 이두영(중앙대학교 교수) 한국도서관협회장과 최희정(인민대학습당 총장) 조선도서관협회장이 오른손과 왼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출함으로써 극적인 남북도서관계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글래스고, 2004년 베를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남측과 북측 도서관계 인사가 간헐적으로 만나 남북도서관 정보의 상호교류와 이용협력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번번이 검토단계에서 좌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2005년 11월 중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북측 도서관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북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준비를 면밀하게 추진하였다.

드디어 북측의 「민화협」에서 발송한 초청장이 조직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어서 통일부의 대북



〈순안공항에 도착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접촉 승인을 얻어 2005년 11월 30일 중국의 심양(瀋陽)을 경유하여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였다. 남북도서관교류의 첫 물꼬를 튼 이후 실로 5년 1개월만이며, 일본·영국·독일 등 세계 여러 곳을 돌아 안착하는 쾌거임이 틀림없었다.

12월 1일(목) 로동신문에서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등 남측 관계자들이 11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

계부문 일꾼들이 그들을 맞이하였다.”라는 기사와 함께 사진을 게재하였다.

민간교류 차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환대를 하고 있다는 북측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느낌으로 그들의 태도로 알 수 있었다. 우선 순안공항 안에 이동차량을 대기시킨 상황부터 노동신문에 2회의 사진 게재와 3회의 사실보도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북측인사들과의 만남, 희망을 갖게 하는 조짐이 보이고

숙소인 양각도호텔을 감싸고 흐르는 대동강이 마치 한강을 보는 듯 하였고 어찌면 서울에 와있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평양도착 첫날 저녁, 북측관계자와의 만찬시간 30분 전!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만찬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우리측에 전달되었다.

리종혁 부위원장이 누구인가? 대남 사회문화와 경제교류에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북측 인사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었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당초 서울 출발 시 주요 면담자 명단에는 없었던 인사였다. 그의 갑작스런 출현은 우리측 방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서먹한 분위기를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가벼운 남북측의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만찬이 끝날 즈음에서는 재치 있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둘째 날,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아침식사를 마친 후, 묘향산으로 출발하였다. 이동차량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의 평양시내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도로는 무척 한적하여 시내를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마침 서설(瑞雪)이 내린 묘향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국제친선전람관’과 보현사 ‘역사박물관’을 참관한 뒤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하기 위하여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뒤로하고 평양으로 향하였다.

궁전인지 도서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주변의 건물을 압도하는 크기의 ‘인민대학습당’은 북측의 국립중앙도서관 역할과 함께 사회교육의 중추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 시설과 기능



〈인민대학습당에서 개최된 도서관 관계자 회의〉

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희정 총장의 안내로 여러 가지 시설과 활동을 둘러본 후 도서관 관계자 회의를 시작하였다. 우선 신기남 조직위원장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북측도서관계 인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남북도서관 교류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상완 집행위원장은 “남북도서관 협력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8가지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출장보고 ①

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측이 제안한 8가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이동도서관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남북도서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북측도서관 소장 주요 고전적(古典籍) 및 자료 목록 전시회 △ 남북도서관간 고전적(古典籍) 조사·수집·영인 및 소장목록 교환 △ 북측도서관백서 발간 △ 동북아 도서관 자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통일 분류법(목록규칙) 연구 및 제작

답변에 나선 최희정 총장은 “남북도서관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평양 방문을 높이 평가하며,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남북도서관 관계자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2006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양측이 서로 공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한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들〉

셋째 날, 오전 만경대와 개선문을 참관한 뒤 만수대 의사당으로 향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측국가원수로 대부분의 외국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북측 최고위 인사이다. 상임위원장실에서 이루어진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기남조직위원장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경제협력분야 및 군사 분야에서도 성과

를 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중단되고 있는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도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6자회담에서 남북이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포함하여 사회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으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방북을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께 정중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화답하였다. 또한 2006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후에는 주체사상탑과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한 뒤 우리측이 주최하는 만찬이 개최되었다. 이 만찬에 리중혁 부위원장과 최희정 총장이 참석하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방북성고가 성공 쪽으로 선회하는 조짐을 감지할 수 있었다.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2% 부족함이 채워질 것인가

두번째 만나는 리중혁 부위원장의 얼굴이 부드러워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신기남 조직위원장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을 포함하여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리중혁 부위원장은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야말로 우리측 관계자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해주었고 이어서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오히려 남북화해 협력을 우리측에 부탁하였다.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건배하는 리종협 부위원장, 한상완 집행위원장, 신기남 조직위원장(좌측부터)〉

최희정 총장은 “꿈 잘 꾸시라우요”라고 간략하게 이야기 하였으나, 나중에 들은 사실로는 북측과의 협상에서 꿈 잘 꾸라는 말은 99% 상대의사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알게 되었다.

넷째 날, 오전 일찍 단군릉으로 떠나기 바로 전 북측에서는 우리측에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북측 도서관 관계자가 참석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라는 낭보(朗報)를 전해주었다. 또한 서울에서 언론을 통해 이를 발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 사회문화 분야의 민간교류에서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고, 최근 남측이 개최하는 국제행사 초청을 번번이 거절하였던 그간의 정책방침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성현(聖賢) 말씀에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하였다. 우리측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그들을 설득하는데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필요했던 무언가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에 단군릉 참관을 마치고 심양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조금함을 감출 수 없었다.

2006년 3월부터는 북측과의 실무 접촉이 시작될 것이고, 당국 간의 악재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또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한상완 집행위원장도 IFLA 본부에서도 바라던 일이 성사되었다고 크게 반기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북측도서관 관계자의 참석은 성공적인 개최에 적지 않은 탄력과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꼭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숙제를 풀어야만이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도서관인들이 그 동안 염원하였던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2006년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언론 및 사회저명인사, 특히 역사가 도서관을 주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이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신화는 창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